

2만4천명 거주하는 구례 1분기에 45만명 다녀갔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주민 대비 18.4배 '전국 최고' 담양도 7배... 지역축제 영향 커

관광객 등 관계인구 확대가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주하는 사람보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실제 거주하는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 체류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약 4배,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로는 약 5배 많은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다.

특히 등록인구는 매월 소폭 감소한 반면, 체류인구는 2월 설 연휴와 3월 지역 축제 등 봄맞이 효과로 인해 1월보다 각각 17.5%, 12.5% 증가했다.

시·도별 생활인구 규모는 부산(3개), 대구(3개), 인천(2개), 경기(2개) 등 광역시 내 10개 인구감소지역이 약 45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인구(83만명) 대비 체류인구(370만명)는 4.5배였다.

다만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12개)이 5.0배로 가장 컸다. 강원도의 생활인구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2024년 1분기 기준) 행안부·통계청 제공		
순위	시군구	배수
1	전남 구례	18.4
2	강원 양양	10.2
3	경남 하동	10.0
4	경기 가평	9.9
5	인천 옹진	8.5
6	강원 고성	8.4
7	경북 청도	7.8
8	강원 평창	7.7
9	경북 영덕	7.5
10	전남 담양	7.0

는 약 285만명으로, 등록인구는 47만명, 체류인구는 237만명이었다. 이어 충남(9개) 4.4배, 전남(16개) 4.3배, 경남(11개) 4.3배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 체류인구 배수는 구례군이 가장 컸다. 구례군 체류인구는 44만 9206명으로, 등록인구 2만 4408명의 18.4배에 달했다. 이어 강원 양양(10.2배), 경남 하동(10.0배), 경기 가평(9.9배), 인천 옹진(8.5배), 강원 고성(8.4배), 경북 청도(7.8배), 강원 평창(7.7배), 경북 영덕(7.5배), 담양(7.0배)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었다. 숙박을 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광역시가 4.7일로 가장 길고 경북(4.3일), 전남(4.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내 평균 재방문율은 26.8%였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필요 기관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양궁대표팀 임시현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여자 개인전 랭킹라운드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이날 임시현은 여자 개인전 랭킹라운드에서 총 694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다. 뉴스

대한민국, 금 5개 이상·15위 내 진입 목표

2024 파리올림픽 내일 개막 '완전히 개방된 대회' 슬로건 206개국서 1만여 선수 참가 32개 종목 987개 메달 경쟁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1년 연기돼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 파리 올림픽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를 슬로건으로 27일(한국 시간) 공식적인 막을 올린 다음 달 12일까지 17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 206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2개 종목에서 987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도 21개 종목에 143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냈다. 축구와 배구, 농구 등 구기 종목의 잇단 부진으로 1976년 몬트리올 대회(50명) 이후 최소 규모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서는 가운데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 순위 15위 이내 진입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광주·전남 소속 또는 출신으로는 근대5종과 배드민턴, 복싱, 사격, 수영, 양궁, 육상, 펜싱 등 10개 종목에서 16명의 선수가 한국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탠다.

이번 대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한국 선수단의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과 3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다. 한국 선수단은 하계 올림픽에서 96개 금메달, 287개 메달을 수확하고 있다.

메달 사냥에는 대표적인 효자 종목인 양궁과 펜싱이 앞장선다.

양궁은 개막에 앞서 사전 경기 둘째 날인 25일 남자와 여자 모두 랭킹 라운드를 치르며 먼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순천시청 남수현을 비롯해 임시현(한국체대)과 전훈영(인천광역시청)이 호흡을 맞추는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은 오는 28일 단체전 10연패를 노린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2021년 도쿄 대회까지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한차례도 놓치지 않았다. 김우진(청주시청)은 오는 30일 개인전 64강에 돌입, 3연패를 겨냥한다.

펜싱은 공식 일정 둘째 날인 27일 여자 에페 개인전과 남자 사브르 개인전으로 막을 올린다. 광주 서구청 강영미는 여자 에페 개인전에 나선 뒤 오는 30일 진행되는 단체전에서는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이해인(강원특별자치도청), 최인정(계룡시청)과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은 여자 에페 단체전 세계 랭킹 2위에 올라 있다.

메달 사냥에 나설 수 있는 다크호스 종목으로는 배드민턴과 근대5종 등이 떠오른다. 배드민턴에서는 나주출생, 품앗이-광주체중-광주체고 출신의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오는 27일부터 여자 단식 조별리그에 입한다. 1번 시드를 받은 안세영은 프랑스의 치 셰페이, 불가리아의 칼로야나 날반토바와 한조에 편성됐다.

근대5종에서는 '쌍두마차' 전용태(광주광역시청)와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다음 달 8일 펜싱 랭킹라운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현재 세계 랭킹 2위와 7위에 올라 있는 전용태와 서창완은 나란히 베르사유 궁전에서 태극기를 펼칠 후 후보로 꼽힌다. ▶관련기사 14면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

